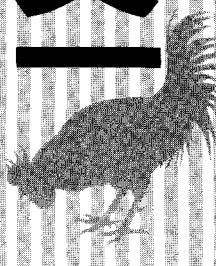


해외양계뉴스



카나다

자동차 번호판에 계란광고

카나다의 온타리오 지역에서 지난 21년동안 채란업에 종사해온 Peter Hunton씨가 농장을 그만 둔 이후에도 계란의 홍보를 위해 차량번호판에 계란을 선전하는 등 계란 소비 홍보에 열정을 보이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농장 은퇴후 World Poultry지의 저자 및 양계 상담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Peter씨의 정성에 힘입어 개인 차량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Peter씨는 계란광고 번호판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계란소비가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WP)



말레이시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

말레이시아에서는 금년 8월부터 외국인 불법 근로자를 추방하는 정책을 펴면서 농장의 노동력 공백에 따른 생산에 차질로 가격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수도인 콜라룸푸루를 중심으로 1,000명이 넘는 노동자를 강제 추방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불법외국인 근로자를 색출해 추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생산자들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산자들은 말레이시아의 닭고기 비중은 1년에 10억RM(약 3,46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 할 정도로 비중이 크며, 하루에 1백만수씩의 닭을 공급하고 있으나 현재 kg당 2.6RM(약 899원)으로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불법체류자 추방에 대한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면서 마찰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AP)

중국

KFC 점포 700곳 넘어

중국에 KFC가 처음 들어선 것은 15년 전인 1987년으로 현재까지 150여 도시에 700군데의 체인점이 개설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7년 이후 100개의 점포를 늘리는데 9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해 볼때 엄청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장마다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내놓고 있다. KFC의 체인점의 하나인 Tricon Global에서는 경영전략은 물론 학생들의 학비조달을 위해 10년동안 3,800만 위안(약 54억원)을 들여 가난한 학생들에게 매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P)

일본

닭고기 소비구성, 가정 31%, 가공 9%, 외식 60%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지난해(1991년) 닭고기 소비구성을 보면 가정소비가 31%, 가공용이 9%, 외식소비가 60%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구성은 25년전인 1975년에 조사되었던 구성비(가정소비 52%, 가공용이 3%, 외식등 기타가 45%)와 비교할 때 가정소비 보다 가공과 외식소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쇠고기의 경우 가정소비가 33%, 가공용이 10%, 외식소비가 57%로 나타났으며, 돼지고기의 경우 가정소비가 42%, 가공용이 26%, 외식소비 32%로 각각

나타났다.(鷄鳴新聞)

남아프리카공화국

채란업자들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에 봉착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닭고기와 계란 사업이 수입급증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위협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의 채란업 동향을 보면 사료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70%가 상승하는가 하면 계란요구량은 턱없이 낮아지고 계란소비량도 지난해에 비해 5%가 감소하는 등 생산자들의 어려움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란 생산자들은 사료업계에 사료가격을 낮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가 하면 계란가격 상승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을 국민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계란 소비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WP)

미국

항균제 사용에 대한 지침 마련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항생제 사용의 제한으로 폭넓게 사용되어지는 항균제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새롭게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서는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던 항균제와 인체와의 상관관계는 물론 적정 사용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 항생제와 함께 새로운 안전성 문제의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WP)